



# 운전자보험 가입자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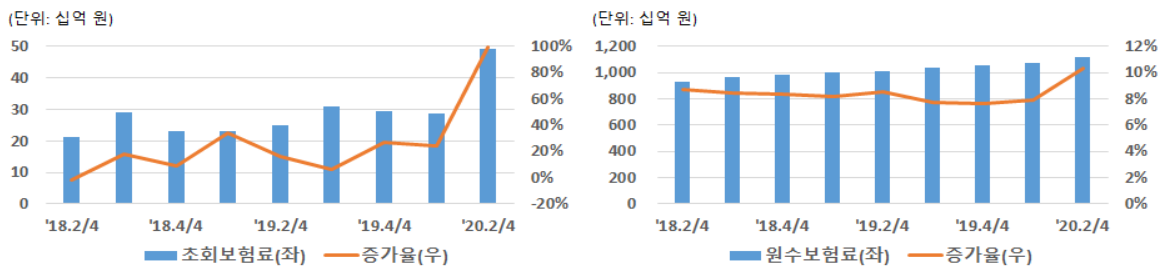
박희우 연구위원

지난 3월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며 손해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크게 증가함.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과 신규 계약의 평균 보험료는 하락하였으며,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자 비중은 상승함. 보험회사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손해보험회사의 2/4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량 급증함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상품임
- 2020년 3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 강화의 영향으로 2020년 2/4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8.9% 급증하였고,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조 1,170억 원을 기록함

〈그림 1〉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 및 원수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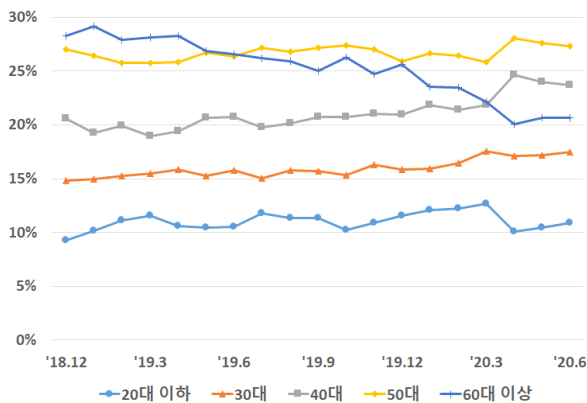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30~40대의 비중은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60대 이상의 비중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의 평균 월납보험료는 하락함

- 본고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보험신용정보 표본DB<sup>1)</sup>를 이용하여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분석함
  - 보험신용정보 표본DB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보험계약정보를 표본추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2018년 12월 말에서 2020년 6월 말까지 총 19개월의 월 단위 정보를 제공함
-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2018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60대 이상에서 7.7%p 하락하였으며, 30대와 40대에서 각각 2.6%p, 3.1%p 상승함
  - 30대와 40대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은 해당 연령층에서 어린이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아 어린이 교통안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추측됨
-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건수 증가율은 60대 이상에서 12.6%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3.4%, 3.7%로 가장 낮았음<sup>2)</sup>
  - 교통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60대 이상 운전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해 보이나, 타 연령대에 비해 수요 확대가 제한적임
- 신규 계약의 평균 월납보험료는 2020년 3월까지 2.8~3.1만 원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20년 4월 상당 폭 하락하여 4~6월에는 2.2~2.4만 원을 기록함
  - 이는 순수보장성 및 '업셀링'<sup>3)</sup> 방식의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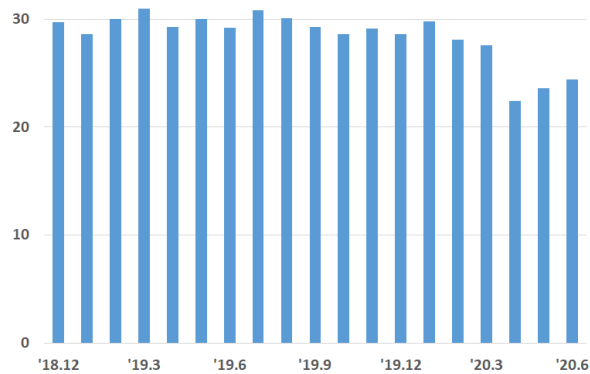
〈그림 2〉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 연령대별 비중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그림 3〉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의 평균 월납보험료 추이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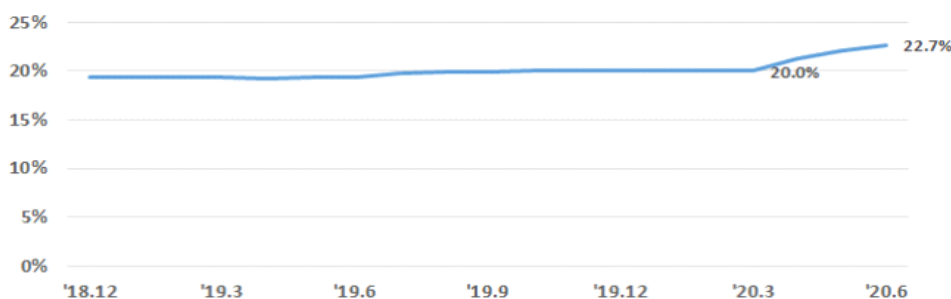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1) 보험신용정보 표본DB는 한국신용정보원의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CreDB)을 통해 제공되며 아래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음; <https://credb.kcredit.or.kr/frt/main.do>  
 2)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교통사고 건수 평균 증가율 또한 60대 이상에서 18.8%로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에서는 각각 -0.2%, 0.1%로 가장 낮았음  
 3) 업셀링이란 보험회사가 기존 가입자에게 보장을 확대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규 가입을 유도하는 전략을 의미함

■ 한편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 이후 운전자보험을 2건 이상 보유한 가입자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2건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한 가입자 비중은 2020년 3월까지 19.3~20.1% 수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2020년 4월 이후 상승하여 6월에는 22.7%를 기록함<sup>4)</sup>
-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교통사고 시 중복 보상되지 않아 동일한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은 실제 비용에 대해서만 비례 보상받게 됨
- 담보 확대를 위한 ‘업셀링’ 등의 방식으로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자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sup>5)</sup> 동일 담보에 중복으로 가입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매 과정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그림 4〉 운전자보험 2건 이상 가입자 비중



주: 보험신용정보 표본DB를 통해 계산된 값으로 실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 확대로 운전자보험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회사는 고령층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보험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수요 확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령층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중복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담보를 중복 보유한 가입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판매 과정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kiri](#)

4) 본고에서 산출한 운전자보험 2건 이상 가입자 비중은 인보험, 정액보험에 대한 계약정보를 제공하는 보험신용정보 표본DB를 통해 계산되었기 때문에 실손 담보만 포함하는 운전자보험 계약정보는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실제 운전자보험 2건 이상 가입자 비중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5. 19),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